

영화 '세바스토폴 상륙작전'

루카센카

부제: 소련 프로파간다와 페미니즘 영화 사이의 그 어딘가





러시아 전쟁영화를 상당히 많이 봤다. 이쪽에서 레전드로 평가받는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템킨'이나 1985년 작 '컴 앤 씨'부터, 최근 영화인 '제8중대'나 망작 취급받는 '스탈린그라드'까지. 하지만 동서를 막론하고 여성이 주인공인 전쟁영화는 없었다. 기껏해야 여성이 피해자 역할로 나오는 '베를린의 여인' 정도랄까. 세상의 모든 전쟁에는 여군이 있었으나 여군의 존재는 잊혀졌다. 특히 독소전쟁 때는 수많은 여군과 동양계 병사들이 있었으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영화들에서 소수자는 그저 들러리 내지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에트연방영웅을 1회 수훈받은 류드밀라 파블리첸코 소령(1916~1974)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세바스토폴 상륙 작전'은 상당히 의미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다. 파블리첸코 소령은 다른 무기도 아니고 모신나강 하나로 독일군 309명을 죽인 대단한 저격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이 영화의 '프로파간다적인 부분'과 '페미니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1. 프로파간다적인 부분

"저는 25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9명의 독일군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제 뒤에만 숨어만 있던 겁니다."

- 미국 시카고에서

영화는 미국과 소련을 왔다갔다한다. 실제로도 1942년 파블리첸코가 박격포에 부상을 입은 후 방미해 루즈벨트 여사를 만났고, 이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미국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파블리첸코의 아픔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물론 미국이 2차대전 때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미국은 랜드리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태평양전쟁을 통해 직접적으로 추축국과의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소련처럼 본토가 쑥대밭이 되지는 않았다. 소련은 독일군의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친구를, 연인을,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잃어야만 했다. 미국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인들을 제외한 민간인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련은 전쟁때 3000만명이 죽었다. 스탈린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한 것이 2015년이다. 즉, 크림 반도 편입 직후다. 그리고 세바스토폴은 크림 반도에 있는 도시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크림 반도 편입을 정당화시킬 명분이 필요하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갈등에서 자국의 우크라이나 영향력 행사를 정당화시킬 명분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대조국전쟁 시절 소련군의 활약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싸웠는데 느그들은 왜 우리 말 안 듣냐고(다만 웃긴 건 파블리첸코는 키예프 출신의 우크라이나인이다)

2. 페미니즘적인 부분

"조국은 전쟁중인데,
여기 미국사람들은 내 속옷 재질이나 립스틱 따위나 궁금해해요."

이 영화는 군인 파블리첸코보다는 인간 파블리첸코의 모습은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른 러시아 전쟁영화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영화의 시작이 전쟁터가 아닌 파블리첸코의 집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어떻게 평범한 대학생이 군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트라우마를 안고 어떻게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전쟁터에서 여성이 겪는 부당함과 불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상관 내지 전우의 성희롱, 성추행은 기본이다. 적군에게

잡히면 성폭행을 당하고 사살당하는 것이 소련 여군의 운명과도 같았다. 그래서 여군에게는 포로로 잡혔을 때를 대비해 자폭용 수류탄도 하나 주어졌다.

영화 속에서 파블리첸코는 연인 3명과 친구 1명을 잃었다. 파블리첸코에게 이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트라우마이다. 프로파간다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넘어 조국을 위해 충성을 마치는 모습은 소비에트 여성의 당당함을 선전한다. 그리고 성 상품화와 자본주의적 향락에 빠진 미국에서의 여성인권울 비판한다.

+소련 자체가 여성주의 및 페미니즘적인 면모가 있었는지는 아직도 controversial하다. 맑스-레닌주의에 기본적으로 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여성해방을 외치는 혁명가도 있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인 소비에트연방영웅을 1회 수훈받은 발렌티나 테리쉬코바 소장(전 소련 최고회의 의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 소련 공산당 여성위원장, 현 통합러시아당 하원의원)같은 경우도 있었고, 혁명가이자 외교관이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혁명가이자 레닌의 아내였던 나데즈다 크룹스카야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정작 권력의 핵심인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여성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소련 붕괴 직전인 1990년이었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가정폭력을 근절하지 못했다. 소련이 정말로 성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했는지, 아니면 그저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자신들이 더 진보적이라는 프로파간다적 목적이 더 컸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여남을 떠나, 나는 소련군의 스나이퍼들을 존경한다. 내 러시아어 이름인 쓰렌다시 김(Цырендаши Ким) 역시 대조국전쟁 당시 독소전쟁에서 저격수로 활약하며 독일군 297명을 사살한 레닌훈장을 수훈받은 부랴트인 쓰렌다시 도르쥬예프(1912~1943) 병장의 이름을 따다. 저격수들은 일반 군인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전쟁을 치른다. 왜냐하면, 일반 군인들은 포로로 잡혀도 포로교환 등을 통해 살아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저격수들은 무조건 사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련군 여성 저격수들은 3000명 중 500명만 살아돌아왔을 정도다.

다른 것을 다 떠나,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인 것 같다 -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모든 군인은 가족과 친구가 있다.

날아가라, 너 비상하는 바람아.
바다 위에서, 대지 위에서,
세상 모두에게 이야기하라.
내 사랑하는 도시에 대하여.
세상 모두에게, 너 알려주어라.
크림의 해안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전투에서 싸웠고,
영예를 얻게 되었는가를.

전설적인 세바스토폴,
적들에겐 난공불락인,
세바스토폴, 세바스토폴은 —
러시아 수병들의 궁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스럽고 정의로운 전장으로,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나아가,
너의 옛 영광을 우리가
전장에서 배가하였다.
흑해함대 장병들은 전쟁의 나날에,
검정 수병외투를 벗어던진 후에
여기에서 수류탄을 들고 전차를 향해 나아갔다.
너의 자식들이 죽음으로 나아갔다.

전설적인 세바스토폴,
적들에겐 난공불락인,
세바스토폴, 세바스토폴은 —
러시아 수병들의 궁지이다!

만약 대양의 뒤에서, 적들이
검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격파의 발포로
불청객들을 맞이하리라.
모든 고국이 알고 있다.
함선들이 잠들지 않고,
고향 땅의 해안을
안전하게 수호한다는 것을.

전설적인 세바스토폴,
적들에겐 난공불락인,
세바스토폴, 세바스토폴은 —
러시아 수병들의 궁지이다!